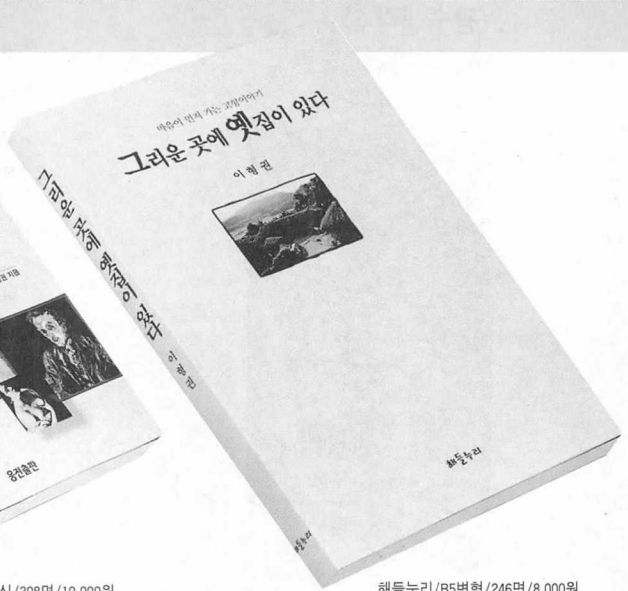




지성사/B5변형/256면/15,000원



웅진출판/A5신/308면/10,000원



해들누리/B5변형/246면/8,000원

## 10년 산고 끝에 얻은 신갈나무 평전



“신갈나무는 자수성가형 나무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적절히 투자하기 때문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신갈나무 투쟁기》  
펴낸  
차윤정·전승훈 부부

지구에서 유일하게 생산자로 살고 있는 나무들은 사람들의 치킨 마음까지 위로할 만큼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이는 숲을 찾는 이의 착각일 따름이다. 나무는 한 알의 종자가 되기 전부터 동물과 곤충들, 그리고 주변에 이미 뿌리내린 식물들과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잔혹한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운명이다.

(주)서안 환경설계연구소 연구원 차윤정(34) 경원대학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정승훈(38) 부부는 신갈나무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 《신갈나무 투쟁기》(지성사)를 펴냈다. 10여년 신갈나무

단종을 연구해 어미 나무가 종자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마침내 숲의 지배자가 되는 과정을 밀도 있게 보여준다.

“신갈나무는 숲의 발달단계에서 최종단계에 도달하는 극상수종입니다. 마침내 숲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어렵니다.”

갇은 우여곡절을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온 신갈나무는 아직 혼자 힘으로 자라기에 힘이 부친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 특히 소나무와 일대 혈전을 벌여야 한다. 그러는 동안 온갖 벌레들이 날아와 몸을 갉아댄다. 경쟁에서 밀려난 수많은 신갈나무는 그렇게 죽어간다.

“신갈나무는 자수성가형 나무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적절히 투자하기 때문에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잎을 떨궈 절약할 줄 아는 신갈나무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뿐만 아니라 삶의 철학도 배워야 한다. 인간사가 복잡한 것은 신갈나무의 생장법칙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자연은 과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숲에서 배울 것은 바로 그것이죠.”

신갈나무 일대기를 과학적 관점으로 조명한 부부는 우리나라 식물사라고 할 수 있는 ‘소나무의 흥망사’도 펴낼 계획이다.

— 오원진 기자

## 미술을 읽는 일곱가지 방법



“그림을 감상하는 데는 지각이 감각적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인식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죠. 그림도 일종의 기호이기 때문에 그 코드를 알면 더 많은 사실이 보입니다.”

《천천히 그림 읽기》  
펴낸 전중권씨

지난 1세기 동안 일반대중에게 미술은 난해하기만 한 예술장르로 각인됐다. 아예 미적인 것 자체가 무너짐으로 해서 현대미술은 일반인의 접근자체를 봉쇄해버린 셈이다. 그래서 오늘날 미술관에 모인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질문은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가?’다.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내놓으려고 시도했다. 이번에는 독일에 유학중인 조이한씨(34)와 전중권씨(37)가 《천천히 그림 읽기》(웅진출판)로 도전했다.

“흔히 그림을 분석하는 일곱가지 방법론을 소개한다는 의도에서 썼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아예 이런 방법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신만의 눈으로 그림을 즐기는 일입니다. 그 뒤에 흥미가 생긴다면, 공부하면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일 테니까요.”

일곱가지 방법론이란 표현양식으로 그림을 감상하는 법, 도상학적 방법, 화가의 무의식의 흔적을 찾아내는 법, 개인과 사회의 미적 상호작용, 여성화가들이 바라본 육체, 기호학적인 접근, 현대미술에 다가서는 다양한 코드 등이다. 이 책은 이 일곱가지 방법론을 적절히 독립적으로 소개한 뒤, 실제 작품을 통해 그 방법론을 검증한다.

“공동저자인 조이한씨는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미술사와 여성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기가 충실한 분입니다. 이 책에 실린 도판들 대부분도 모두 재확인을 거쳤습니다.”

조이한씨가 미술사적인 전통에 충실하게 접근했다면, 진중권씨는 기호학·미학 등 그림읽기의 철학적 부분을 다뤘다. 진중권씨의 책은 앞으로도 자주 접할 수 있을 듯하다. 베를린 자유대학 철학 박사과정에 다니다가 이번에 귀국한 그는 그간 연재한 글을 모아 독서일기와 미학에세이를 엮어낸 생각이다. 미학에세이의 경우, 포스트모던의 관점에서 미학사를 훑어보는 작업이다. 하지만 기대되는 것은 아내와 함께 펴낸 《성의 미학》, 서양미술에 나타난 성의 도상을 풀어쓰는 책이 될 텐데, 그의 아내 역시 미술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김연수 기자

## 멀리 있는 빛을 찾아 떠난 길



“우리 옛집에는 주인의 마음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월성 송씨 종가집인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은 모든 일에 참을 인자 백번 쓰는 심정으로 임하라는 인내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새기며 빗마루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그리운 곳에 옛집이 있다》  
펴낸 이형권씨

우리에게 고향은 멀리 있는 빛이다. 댕돌 위 검정 고무신이 옛 주

인의 온기를 기억하는 곳, 처마에 떨어지는 빗물에 망연히 먼산만 바라보던 곳, 사립문 밖으로만 향하던 마음이 기대던 문설주가 세월을 견디는 곳. 그곳에 한때 우리를 보듬어주던 옛집이 있다. 우리 옛것을 찾아 떠도는 시인 이형권씨(37)의 《그리운 곳에 옛집이 있다》(해들누리)에는 우리 옛집의 장엄한 풍경이 담겨 있다.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가고 싶은 추억 속의 공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언제나 마음은 고향의 언저리를 떠돌았습니다. 이제는 쓸쓸하고 적막한 우리 고향의 옛집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담긴 철학과 생활상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낙안읍성 초가집부터 순천 송광사까지 이 땅을 밟은 사람들의 미의식이 담긴 건축공간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본 순례기다. 흰 구름 속에 학이 노닌다는 문화유씨 종가집 운조루, 청정함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담양의 독수정과 물염정 등 산과 마담과 구름을 끼안은 옛집의 자태가 무상한 세월을 거슬러 우리 앞에 되살아난다.

“우리 옛집에는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의 독특한 미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흙담 밑의 화초나 댕돌, 장독대에서도 주인의 섬세한 심성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안동 병산서원처럼 주변의 자연환경을 생활공간으로 끌어안으려는 수준 높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옛집을 우주적 사유공간으로 본다. 예컨대 완주의 화암사는 속세를 등지고 저 깊은 마음의 세계를 향해 가는 선사들의 수행처였다. 번뇌의 입을 틀어막듯 대문을 막아버렸지만 돌계단을 지나 문지방을 넘어서면 저 멀리 밝은 빛의 세계가 열린다. 절마당에 별빛이 쏟아져내리면 나그네는 감탄한다. “아, 천길 바위벼랑 위에 피어 있는 한 떨기 야생화 같은 절”이라고.

“낙안읍성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김대자씨의 얘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댕돌도 옷은 낫짝이 있어야 마음이 좋아지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자신의 우주 속에서만 담아낼 수 있는 철학이지요. 이런 정신이 우리 선조들의 심성이었습니다.”

한국문화유산답사사회에서 일하다 지금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답사강좌를 맡고 있는 그는 문예운동지 《녹두꽃》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그는 요즘 시로의 귀향을 꿈꾸고 있다. 스산하고 초라해져버린 우리 것을 찾아 떠난 길에서 만나고 느꼈던 감동을 시로 풀어내겠다는 생각이다.

- 박천홍 기자